

잘 팔리는 비밀, 초일류브랜드에서 배우다

21세기는 무언가를 파는 시대다. 범박하게 말한다면 인류 역사는 무언가를 팔고 사는 시대였다.

사업가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다. 직장인은 상사에게 기획안을 판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책과 비전을 팔고, 국회의원은 자신의 공약을 판다. 취업준비생은 입사를 원하는 회사에 자신의 가능성을 판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잘 팔 수 있을까.

하루에도 수백개씩 쏟아지는 브랜드 대홍수 속에서 자신만의 필살기로 업계 1등이 되고 시장의 판세를 바꾼 25개 초일류 브랜드에서 배우는 '팔리는 비밀'을 책으로 엮은 이가 있다.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브랜드보이 일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안성준이 주인공. 그가 펴낸 '드디어 팔리기 시작했다'는 포화의 시대 어떻게 하면 '삼품'을 잘 팔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췄다.

역사상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많은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았었다. 바뀌 말하면 역사상 가장 팔기가 힘든 시기가 오늘날이다. 제품에만 한정되는 얘기가 아니다. 브랜드나 광고도 너무 많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접하는 광고가 3000개에 이른다고 한다.

일반적인 사람만이 아니다. 정치인, 의사, 아이돌그룹 할 것 없이 다양한 셀럽들이 쏟아져 나온다. 수많은 제품과 다양한 사람들이 나를 선택해달라 'Pick Me'를



드디어 팔리기 시작했다

안성은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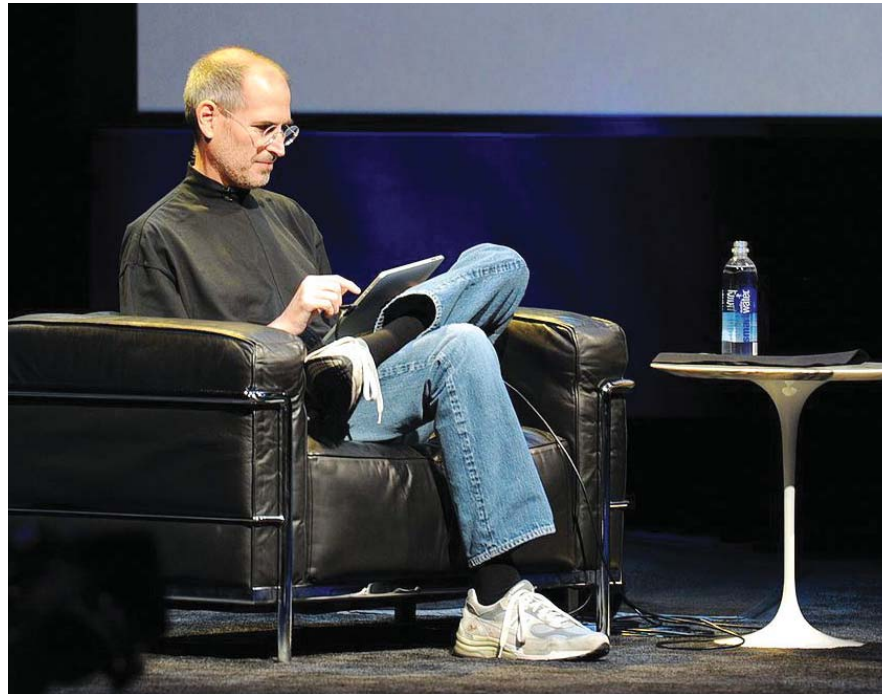
의치는 시대다.

저자는 '팔리는 브랜드'에서 배우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이른바 '초일류브랜드'를 들여다 보면 답이 나온다.

저자는 '사명', '문화', '다름', '집요', '역지사지'의 5개 핵심 키워드로 이를 분석했다.

첫 번째 초일류 브랜드에는 '사명'이 있다. '토스'는 복잡한 금융 생활을 쉽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며, '에어비엔비'는 현지에서 살아보는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파고니아'는 파괴되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존재 이유였다.

두 번째 초일류 브랜드는 제품이 아닌 '문화'를 만든다. 이들은 소비자들 무엇을 원하는지 간파했다. 저자는 "기업문



스티브 잡스는 심플함에 미친 인간이었다. 옷차림도 한 가지 스타일을 고수했다.

화는 공이다. 어떤 직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회사 공기가 보였다. 그 공기 속에서 탄생한 브랜드 수준을 짐작할 수 있었다. 경직된 공기가 흐르는 회사에서 만든 브랜드는 그 회사만큼 딱딱하고 고루했다"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은 B급 문화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놀이공원을 만들었고, '빔즈'는 빔즈 옷을 멋스럽게 차려입은 직원들이 안

내하는 놀이공원을 만들었다. '에이스호텔' 또한 취향이 분명한 사람들이 모여 놀 수 있는 복합 문화를 조성했다.

세 번째 '다름'은 "민는 상식을 뒤집고 이질적인 것을 충돌시키는 차별화의 귀재"를 일컫는다. 초일류는 차별화에 목숨걸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믿는 상식을 무너뜨린 이가 '돈키호테'였고 '호시노야 도쿄'는 시골에 있던 료관을 도시로 옮겨왔다. '모노클'은 모든 잡지가 하는 것과 거



배우 류승룡이 철가방을 들고 말을 탄 배달의 민족 첫번째 TV 광고.

꾸로 해 성공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집요'다. '블루보틀'은 최고의 커피 맛을 지키는 데 집착했고 '프라이탁'은 광적인 규율을 지키는데 역점을 뒀다. 박용현 크리에이티브 대표는 "스티브 잡스는 천재가 아니다. 단지 집요할 뿐이다"라고 언급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역지사지'다. 저자는 초일류 브랜드는 "오직 고객의 입장에서 행동한다"고 강조한다. '월라'는 브랜드

의 클래식한 유산을 밀레니얼 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점을 바꿨다. '발뮤다'는 디자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고객의 시각에서 바라봤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묻는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팔았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더 퀘스트·1만6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박사·소설가)

희망을 향한 반걸음

김홍걸 지음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다시 훈풍이 불지 관심이 집중된다. 북미 실무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11월 아세안특별정상회의의 참석,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한 큰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이후의 상황은 급변했고, 한반도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김홍일 민족화해협력 범국민 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희망을 향한 반걸음'을 펴냈다. '한민족의 공존과 한반도 평화에 나서는 길'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한반도 평화시대'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한반도 평화의 지도자인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과 동반자이자 평화운동가로 활약했던 어머니 이희호 여사의 뜻을 이어받아 평화시대를 열어나가는 과업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남북 정부의 교류가 절리러워진 상황에서 민화협을 통한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저자는 책에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바람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평화를 향해 순풍에 돛 단 듯 나아가 수 있도록 바람을 제대로 읽고 방향타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저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2017년부터 민화협을 이끌고 있으며 올해 3·1절 백주년을 맞아 북한 민화협과 함께 강제징용 피해자 유골 봉환 사업을 진행해 74유골을 모셔오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저자는 작금의 대일 관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한일관계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고 밝혔다.

(비타비타·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공정하지 않다

박원익·조운호 공저

최근 90년대생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개인적인지 집단적인지, 부정적인지 열정적인지 예측하기 힘든 사고방식과 더불어 기존의 사회구조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이 잦은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지자체 정책연구기관 연구원 박원익과 여론조사기관에서 활동 중인 조운호가 90년대생들이 원하는 공정함의 원칙을 분석한 책 '공정하지 않다'를 펴냈다.

책은 90년대생을 패트주의, 중립주의, 평등주의 등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권한다. 그 바탕에는 IMF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성장기를 보내며 독립적인 사회인으로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적은 시기를 살아왔고, 결국 '민을 건 나뭇잎에 없다'는 생존관이 퍼지는 등 배경 요인이 맞물려 있다. 저자는 청년들이 '공정'을 중요시하는 이유를 알고 '새로운 공정함의 기준'을 통해 그들의 욕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책은 2부에 걸쳐 진행된다. 1부에서는 공정함과 자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시작해 '돈도 실력인 사회',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 '자신도 지키지 못할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행위' 등 90년대생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6가지 사례를 분석한다.

2부는 90년대생에 전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법에 대한 조언으로 채워졌다. '누가 더 불쌍한 피해자인지 경쟁하지 말라', '잘못하지 않은 일에 사과하지 말라',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믿어라' 등 그들이 불평등하고 불확실하다고 여기는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방어할 수 있는 6가지 조언이 담겼다.

(지외인·1만58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산업혁명의 숨은 주역들

김은한 지음

18세기 산업혁명은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삶을 뒤바꿨다. 이 시기 증기 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처럼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이들이 있었으나, 산업혁명의 완성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혁신가들의 고된으로 이뤄졌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지금, 과거 산업혁명 당시를 살았던 이들의 삶과 선택을 담은 책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김은한이 산업혁명을 이끈 15명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산업혁명 숨은 주역들'을 출간했다. 신·구기술의 역학 관계, 새로운 규칙의 창조, 산업화와 새로운 사회제도의 도입, 혁신의 실패와 수용, 산업과 과학의 조우 등 다양한 관점으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본 책이다.

책에는 증기기관에 앞서 철재 수차를 개발해 방직기 생산성을 배로 높인 존 스미턴 등 개발자뿐 아니라 '정기선' 개념으로 뉴욕항을 무역 중심지로 만든 벤저민 마셜, 특허 기관을 연장해 증기 기관 실용화에 도움을 준 매슈 볼턴, 언론과 정부의 압박으로 비행기 개발을 완성하지 못한 새뮤얼 랭글리와 같이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채로운 방면에서 인물들을 소개했다.

총 7개 파트에 걸쳐 진행되며, 각각 혁신가(개발자), 규칙을 혁신에 유리하게 바꾼 '게임체인저', 실패한 혁신가, 지적재산권 개념을 재정의한 정치가, 여성을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시킨 여성들, 산업과 끝없이 갈등을 빚은 과학자, '데이터' 세계를 개척한 이들 등을 짚는다.

또한 책은 자신만의 방향을 찾고, 자신만의 전략을 찾아야 하는 이유 등을 밝히며 미래를 대비하는 제안도 담았다.

(삼성경제연구소·1만60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모 집 인 원
인 문	신 학 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사 범	유아교육과	3
사 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예 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5
총 계		28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 형 일: 2020. 1. 7(화)

입학문의 ▶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 ~ 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열정
꿈
진리로 흥망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0	
		신학과(Ph.D.)	7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8	
		상담심리치료학과(D.C.S.)	8	
		코칭심리학과(D.Psy.)	8	
		통합예술치료학과(D.C.S.)	5	
		석박사통합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20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학과(M.S.W.)	2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Ed.)	20	
국제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 추후 공지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